2018. 6. 20. (수) **직업관련 드림레터 제2호**

상해한국학교
편집인: 또래 진로코치단 동아리
홍보팀 김소원 (2면)

중등학교 교사(teacher)

학생들에게 교과목을 가르치고 생활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교사의 주요 업무

- 중등학교교사는 국·공·사립 중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과목을 가르치고 생활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를 보내는 학생에게 가치관을 확립해 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 학교의 교육 계획과 수업 이수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전담하는 과목의 학습안을 설계하고, 교과서를 비롯해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교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험, 실습을 지도하고, 학습 진단을 위하여 시험을 출제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성적표를 작성 한다
- 학생들의 다양한 고민을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학부모와도 상담을 하며, 진로지도를 비롯한 생활지도를 한다.

교사가 되기 위한 핵심 능력

언어능력, 자기성찰능력, 수리논리력(자연계)

적성 및 흥미

중등학교교사는 교육과 학생에 대한 통제력, 리더십, 판단력, 분석적사고 능력이 필요하며 원만한 수업진행을 위한 정확한 언어 구사 능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므로 교육자로서 투철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이 필요하며, 교육과 학생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요구된다.

취업방법

- 국공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 해야 한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총 2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험에서는 교육학 전반과 전공지식을 논술형, 기입형, 서술형으로 평가한다. 2차 시험에는 심층면접, 지도안 작성, 수업능력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는 결원이나 추가 모집이 있는 경우에 대학의 추천, 채용사이트, 신문공고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장과 사학재단의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채용될 수 있다.
-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교육청 게시판이나 채용사이트를 확인하고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을 해서 채용될 수 있다.

고용현황

- 중·고등학교 교사의 종사자수는 223,600명이다.
- 중·고등학교 교사의 성비는 여자 55.9%, 남자 44.1%이며, 평균 연령은 41.5세이다. 전체적으로 평균 16.6년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계속 근로연수는 13년이다(자료: 2013-2014 Job Map).

임금수준

중·고등학교 교사의 월평균 수입은 332만원이다.
(자료: 2013-2014 Job Map)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방법

1. 정규 교육과정

- 중등학교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정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4년 동안 교육과 실습을 받거나,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하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음으로써 학부 전공과 관련있는 교과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 관련 자격증

- 중등학교교사와 관련된 국가자격증으로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중등학교 정교사 1급, 2급 자격이 있다.
-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4년 동안 교육과 실습을 받거나,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하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무시험 검정으로 취득할 수 있다.

2018. 6. 20. (수)

직업관련 드림레터 제2호

상해한국학교
편집인: 또래 진로코치단 동아리
홍보팀 김소원 (2면)

직업 전망

- 중등교사의 복리후생 수준은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자리의 창출과 성장이 매우 제한적이고 취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 대부분 정규직으로 고용되며 고용도 잘 유지되는 편이다.
- 업무를 통한 자기개발가능성이 높으나 능력에 따른 승진이나 직장이동의 가능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 근무시간이 짧고 매우 규칙적이며, 근무환경이 쾌적하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평균에 비해 심한 편이다.
-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업무에서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사회적인 평판이 좋으며, 사회에 대한 공헌이나 직업소명에 대한 의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 시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별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커리어넷(www.career.go.kr)

문의기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eduhope.net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http://www.kfta.or.kr

본교 중등 국어교사 김선호 선생님의 솔직 인터뷰

1. 교사가 되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야 말겠다는 거창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일은 바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라는 생각에 교사로서의 꿈을 키웠습니다. 삶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래와 꿈에 대해 생각을 나누며 아직 백지처럼 깨끗한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품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교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2.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이십니까?

나의 말 한 마디로 인해 한 사람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교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큼 보람찬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해 할 줄 아는 제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채워가는 제자를 만났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3. 교사로서의 고충 또는 시련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내가 타성에 젖어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교사로서 가장 큰 시련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 없이 무의미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큼 큰 시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 품었던 원대한 꿈이 시들해지고 가르치는 일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무료하게만 느껴질 때, 그때가 제게는 가장 큰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4.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먼저 중등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중등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대학교에서 사범대학에 있는 각 교과교육학을 전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어 교사가 되려면 국어교육과를 영어 교사가 되려면 영어교육과를 졸업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범대학이 없는 대학교의 경우 교직 과정이 개설되었다면 교직 과정 이수를 통해 중등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중등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중등교사자격증이 있다고 다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로 임용이 되어야 하는데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는 방법과 사립학교 교사로 임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려면 교원임용고사(교원순위고사라고도 합니다.)를 보아야만 합니다. 교원임용고사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실시하는데 해마다 각 과목별로 뽑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시험성적에 따라 교원임용순서가 정해지고 이 순서에 따라 빈자리가 날 때마다 순서대로 교사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교원임용고사는 전공과목 시험과 교육학 시험, 면접 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성적도 임용고사 1차 성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 학점 관리를 잘해야만 합니다. 최근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원임용고사의 평균 경쟁률이 20:1을 넘는 경우가 많아서 교원임용고사에 합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들 합니다. 한 번에 붙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노량진 학원촌에서 몇 년 동안 학원 수업을 수강하면서 임용고시 수험생 생활을 이어가는 청년들도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류 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교원임용고사에 합격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따로 시험을 보아서 각 학교별로 교사를 채용하는데 이 역시 경쟁률이 매우 높아서 어지간한 스펙과 실력이 없다면 교사로 채용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도 교원임용고사를 준비하면서 전심전력을 다하기 위해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8개월간 생활하였습니다. 하루 5~6시간만 자고 1평 남짓밖에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 갇힌 상태로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교육학 학원 수강, 전공과목 스터디 모임 참여, 주 1회 종교 생활을 위한 외출을 제외하고는 고시원을 벗어나지 않고 교원임용고사 준비에 매진한 결과 교원임용교사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끝.